

2026년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황인정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연구원 (ijhwang@kiep.go.kr, 044-414-1553)



차 례

1. 2026년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의의 배경
2. 2026년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6년 5월 11~1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의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입지가 좁아지고, 신흥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대아프리카 관계의 지역적 범위와 협력 방식을 재정립하려는 배경에서 개최됨.
 - 이번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비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는 프랑스가 기존 프랑스어권 중심의 협력 구도에서 벗어나 동아프리카를 비롯한 영어권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흐름을 보여줌.
 - 프랑스는 '대등한 파트너십(partenariat d'égal à égal)'을 바탕으로 경제·투자, 민간 부문 협력, 청년 및 기업가정신 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을 재정립하고자 함.
- ▶ 이번 정상회의는 35개국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여 '아프리카 포워드: 아프리카-프랑스 혁신과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Africa Forward: Africa-France Partnership for Innovation and Growth)'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무역·통상, 투자, 안보 등을 중심으로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선언문에서는 농업, 보건, 에너지 전환, 청색경제, 디지털·AI, 국제금융체제 개혁, 인프라, 무역, 지역통합 등의 분야에서 아프리카의 주권과 아프리카 주도의 발전 방향을 강조함.
 - 투자 측면에서는 총 230억 유로(프랑스 측 약 140억 유로)가 발표되었으며, 인프라 구축, 가치사슬 고도화, 디지털 역량 강화, 보건 및 에너지 접근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
- ▶ 정상회의의 결과는 △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협력 방식 전환, △ 영어권 및 동아프리카로 협력 범위 확대, △ 민간투자 및 공동금융 중심의 협력 강화, △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위한 삼각협력 가능성 등을 시사함.
 - 프랑스는 AFD, Proparco, Bpifrance 등 개발·금융기관과 프랑스 민간기업을 활용하여 공공개발금융과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아프리카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아프리카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한국 기업의 진출 사례와 현지 네트워크가 아직 제한적인 만큼, 현지 사업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와의 협력을 활용해 공급망 다변화 및 신시장 진출 기회를 도모할 수 있음.

1. 2026년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의의 배경

■ 프랑스는 1973년부터 프랑스어권 국가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와의 협력 구심점으로서 정상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이를 시작으로 점차 초청국 및 의제의 범위가 넓어짐.¹⁾

- 제1차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프랑스蓬피두 대통령과 니제르 및 세네갈 대통령의 제안으로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 간 비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음.²⁾
-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의는 기존에 프랑스의 영향권하에 있던 프랑스어권 중심의 협력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정상회의 참여국이 점차 확대되고 주요 논의 의제가 확장되면서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재편됨.
 - 제1차 정상회의의 경우 프랑스 및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가봉 등을 중심으로 프랑스어권 10개국에 참석하였으나 1978년 20개국, 1981년 31개국, 1996년 46개국에 이어 2001년 및 2003년 회의에서는 52개국이 참석함.
 - 2000년 이전 정상회의 초기 단계에는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 등 지역 차원의 의제가 논의되었으나, 점차 세계화, 글로벌 거버넌스 등 국제 사회에서의 아프리카에 대해 논의

표 1.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의 개최 현황과 주요 의제

시기	주요 논의 내용·특징
1970년대	·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와의 특수 관계 유지 목적 · 프랑존, 프랑코포니 등 기존 프랑스어권 국가와의 결속을 강조
1980년대	· 차드 문제 등 안보 현안, 부채, 원자재 가격 하락, 개발원조 문제 논의 · 미테랑 정부 출범 이후 회의의 대륙적 확대를 시도했으나,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특수 관계도 병행 유지
1990년대	· 민주주의와 개발의 연계 강조 · 르완다, 대호수 지역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분쟁 현안 부각, 안보 문제 논의 · 선진국 원조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좋은 거버넌스' 제시
2000년대	· 세계화, 이민, 청년 빈곤, 국제무역체제 내 아프리카의 이익 등 글로벌 의제로 확대 · 프랑스어권 중심 회의에서 범아프리카적 협의체로 변화
2010년대 이후	· 글로벌 거버넌스 내 아프리카의 위상, 기후·에너지·환경 협력, 사헬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안보 문제 등 논의 · '프랑사프리카(Françafrique)*' 기조의 단절 표명

주: * 프랑사프리카(Françafrique)는 아프리카의 독립 이후에도 프랑스가 옛 식민지와 유지해 온 정치·경제·안보 관계를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임. 이는 군사 개입, 방위 협정, 세파프랑(CFA) 통화권, 프랑스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 비공식 외교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속되었음. Géoconfluences(2026. 5. 21.), "France-Afrique, Françafrique / Afrique-France"(검색일: 2026. 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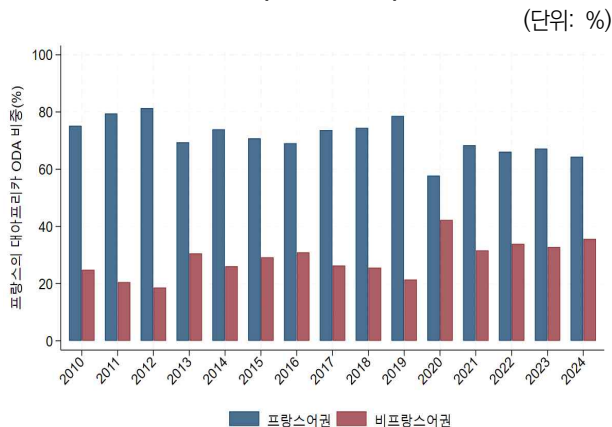
자료: Aymeric Durez(2022. 2.), "Aux origines du Sommet franco-africain: un nouvel outil au service de la politique africaine de la France (1973-1981)," *Matériaux pour l'histoire de notre temps*, n° 145-146, pp. 146-149; Élysée; Les Echos(2010. 5. 31.), "Les sommets France-Afrique depuis 1973"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1) 프랑코폰(Francophone) 국가 및 프랑스어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국가를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로 정의: 알제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 기니,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로코,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토고, 튀니지.
- 2) Archives de l'Élysée, "23ème sommet Afrique France - Les sommets"(검색일: 2026. 6. 23.).

■ 프랑스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정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유지해 왔으나, 군사·경제 등의 부문에서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약화하면서 대아프리카 전략의 재조정 및 비프랑스어권 아프리카로 협력 대상이 확대되어 왔음.

- 프랑스의 아프리카 내 군사적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과거 상설 군사기지 설립 및 군사 개입 중심의 전략에서 기술 지원 및 군사 훈련 등 역량 강화 중심의 파트너십으로 재조정됨.
 -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2022~23년 해당 국가에서 프랑스군이 철수했으며, 2025년에는 차드,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에서도 프랑스군의 철수·기지 반환 및 상주 병력 대폭 축소·상설 군사 주둔 종료³⁾가 이어짐.
- 경제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기존 프랑스어권 국가 중심의 협력이 점차 비프랑스어권으로 확대되고 있음.
 -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ODA는 여전히 프랑스어권 국가의 비중이 높지만 2010년대 이후 비프랑스어권 국가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며 2024년에 2010년 대비 10.8%p 증가함.
 - 비프랑스어권 국가로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어 2024년에 2005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44.3%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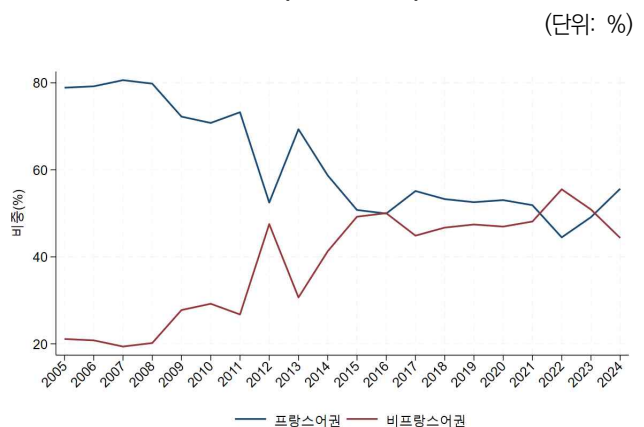
그림 1.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ODA 비중 추이(2010~24년)



주: 프랑스어권은 본고의 정의에 따라 분류.

자료: OECD Data Explorer,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FDI 누적액 비중 추이(2005~24년)



주: FDI positions - total, outward 기준임.

자료: OECD Data Explorer, "FDI by counterpart area and by economic activity, BMD4"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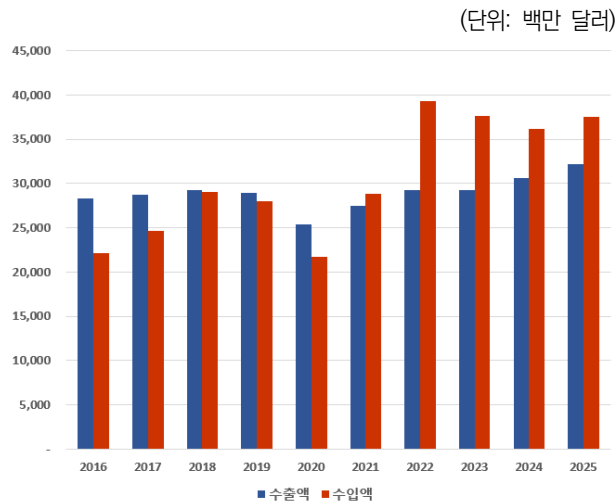
■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중동 산유국 등 신흥국이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동아프리카 및 영어권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협력 기반을 모색하는 가운데 동 회의가 개최됨.

- 아프리카 시장이 확대되고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신흥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확대되면서 프랑스의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⁴⁾

3) Anaëlle Jonah(2025. 1. 2.), "‘Time to move on’: France faces gradual decline of influence in Africa," France24(검색일: 2026. 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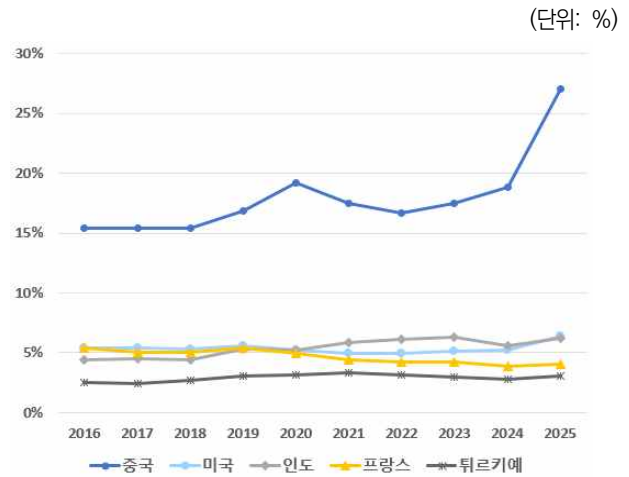
4) Faure, Raphaëlle(2022. 4. 7.), "The future of France-Africa relations: lessons from France’s engagement with Africa under Macron and recommendations for the incoming President of France," ODI, p. 15(검색일: 2026. 6. 25.).

그림 3.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무역 규모(2016~25년)



주: 프랑스의 아프리카 54개국 대상 수출 및 수입 규모임.
자료: ITC Trade Map, "France_Export_Africa"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수출 비중 추이 (2016~25년)



주: ICT Trade Map 기준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국가 중 상위 10개국에서 5개국을 선정하여 작성함. 상위 10개 국가는 차례대로 중국, 미국, 인도, 프랑스, 남아공,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임.

자료: ITC Trade Map, "List of supplying markets for a product imported by Africa"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중국] 중-아프리카 협력 확대 기조 속에서 2026년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53개국을 대상으로 모든 대중국 수출 품목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여 정치·경제적 유대를 강화⁵⁾⁶⁾
- [러시아] 특히 사헬 지역 국가와 안보 및 군사협력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러-우 전쟁 이후 아프리카의 외교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곡물 및 비료를 지원하기도 함.⁷⁾
- [튀르키예] 2008년부터 튀르키예-아프리카 협력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제4회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2025년 제5차 튀르키예-아프리카 비즈니스 및 경제협력 포럼(TABEF)을 개최하여 양자 무역 및 투자 확대를 논의하는 등 정례화된 협의체를 통해 양측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음.⁸⁾
- [중동 산유국]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에너지 전환, 인프라 개발, 광업 등의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대아프리카 수출 및 수입 규모가 증가하였음.⁹⁾

5) 이한나(2026),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관세 협력 확대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6-34, p.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대만과 수교한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53개국임.

7) Benjamin Roger, Poline Tchoubar(2025. 1. 24.), "Russia delivers armored vehicles to Mali and restructures military presence"; Reuters(2025. 4. 4.), "Russia vows military backing for Sahel juntas' joint force"; Reuters(2024. 2. 21.), "Russia says it shipped 200,000 tonnes of free grain to six African countrie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6. 5.).

8) TABEF 웹사이트, "Overview"(검색일: 2026. 6. 6.).

9) World Economic Forum(2024. 4. 28.), "A new economic partnership is emerging between Africa and the Gulf states"(검색일: 2026. 5. 31.).

2. 2026년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 2026년 5월 11~12일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의는 35개국의 정상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경제 및 투자를 중심으로 양측 간 협력을 논의¹⁰⁾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1973년 제1차 정상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이후 프랑스 또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에서만 아프리카와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던 관행을 깨고 영어권인 나이로비를 개최지로 선정하여 소위 ‘텃밭(pré carré)’ 종식에 대한 의지를 보임.
- 5월 11일에는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12일에는 프랑스 및 아프리카 정상급 인사의 논의가 이어짐.
- 프랑스는 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존 원조 및 군사협력 중심의 협력, 정치 문제 논의에서 경제·투자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여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함.
 -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포워드: 아프리카-프랑스 혁신과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Africa Forward: Africa-France Partnership for Innovation and Growth)’을 주제로 하여 경제·투자, 금융, 혁신, 안보, 청년, 민간 협력 등을 논의
 -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상회의를 구성하여 정부 간 협력에서 민관협력으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함.

■ 이번 정상회의의 기조는 ‘대등한 파트너십(partenariat d’égal à égal)’ 구축임.¹¹⁾

- 공동투자, 민간 부문 참여, 청년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함.
- ‘경제 및 투자’, ‘평화와 안보’를 주요 축으로 개최하며,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포럼이 연계 개최됨.
 -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안보, 경제, 보건,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아프리카의 주권 확립 및 존중과 아프리카 주도의 발전 방향 모색을 강조하는 가운데 프랑스와 아프리카 간의 파트너십 강화

10) 35개국: 케냐, 레소토, 콩고, 지부티, 르완다, 토고,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에티오피아(총리), 시에라리온, 콩고민주공화국, 모리타니, 리비아, 잠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세네갈, 차드, 튀니지, 탄자니아(총리), 보츠와나, 가나, 모잠비크, 가봉, 기니, 마다가스카르, 에스와티니(총리), 모로코(정부수반), 모리셔스(총리), 적도 기니(부통령), 나미비아(부통령), 부룬디(부통령)(별도 명시 없는 국가는 정상 참석).

11) Direction Générale du Trésor(2026. 5. 18.), “Retour sur le Sommet Africa Forward, les 11 et 12 mai 2026 à Nairobi” (검색일: 2026. 6. 25.).

표 2. 2026년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의 선언문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평화, 안보, 전략적 자율성 강화	- 테러리즘, 초국가적 조직범죄, 불법 무역 등 대응 - 안보를 경제성장, 청년, 교육, 기후회복력 등의 개발 의제와 연계
지속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 진전	- 농업의 현대화, 기후회복력 강화, 영양 강화 및 식량안보 제고 - 농산업화 및 농산물 가공, 콜드체인, 물류 등 통합 가치사슬 구축 - 프랑스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십 촉진, 기후 스마트 투자 - 여성 및 소농 역량 강화, 도·농 간 경제 연계 활성화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구축	1차 의료 강화 및 보건 시스템 개선,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및 의료 기술의 역내 생산 가속화 - 보건 제품의 규제 강화 및 조화, 보건 분야 인력 개발
그린 산업화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한 성장 촉진	- 재생에너지, 저탄소 수소,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촉진 - 에너지 안보 및 주권 강화, 청정에너지 가치사슬 개발 지원 - 청정에너지 접근성 확대 - 핵심 광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존중, 아프리카 핵심 광물의 현지 가공, 부가가치 창출 등 촉진
청색 경제의 잠재력 활용	- 해양 안보, 무역 및 역량 구축 관련 프랑스-아프리카 간 공동 투자 - 해양 주권 존중 및 강화, 해적 행위, 밀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등에 공동 대응,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위기에 대응
디지털 전환 및 AI 활용	- 포용적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 디지털 기술이전 촉진 및 아프리카의 디지털 주권 확립 - 지식재산권 등 디지털 분야 거버넌스 진전 - 디지털 무역 등 데이터 흐름 강화 -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국제금융체제 개혁	- IMF 쿼터 및 집행이사회 내 아프리카 대표성 확대 추진 - 국제개발협회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양허성 자금의 가용성 보장 - 글로벌 조세 시스템 촉진
인적자본, 기술, 혁신 투자	교육, 훈련, 기술개발 확대, 지식 교류 및 제도적 파트너십 촉진
인프라, 무역, 지역통합 강화	- 교통,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투자 - AfCFTA 이행 지원, 지역 가치사슬 및 시장 통합 강화
전환을 위한 자원 동원	- 혼합금융, 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 - 공공재정관리 강화 노력 지원 등
전환을 위한 공동 비전	- 자원 기반 경제에서 부가가치 창출, 제조업,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원 - 아프리카를 미래의 시장이 아닌 생산·혁신 및 글로벌 경제 파트너로 인식

자료: The Africa Forward 2026 Summit Declaration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 [무역·통상] 양측은 원자재 수출 중심 경제에서 나아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기반으로 하는 역내 시장 통합 활용을 강조하였으며, 아프리카의 가치사슬 고도화를 통한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 - 특히 선언문에서는 농업, 핵심광물, 에너지,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현지 가공, 부가가치 창출, 제조업 육성 등을 통해 아프리카를 단순한 원자재 공급지나 미래 소비시장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생산 및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됨.
- [투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된 전체 대아프리카 투자 규모 230억 유로 중 프랑스의 공공 및 민간 투자 규모는 약 140억 유로로, 에너지 전환 분야의 투자 규모가 가장 컸으며, 프랑스 정부와 민간기업, 국제기구가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됨.

- 에너지 전환과 청색경제 분야의 경우 항만 및 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인프라 투자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낙농, 원예 등 다양한 분야의 가치사슬 구축 관련 투자가 발표됨.
- 디지털·AI 분야에서는 광섬유망, 위성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연결성 확대와 함께 AI 교육,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등 아프리카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다수 발표됨.
-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개발청(AFD), Proparco, Bpifrance 등 프랑스 개발 및 금융기관과 아프리카 현지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과의 공동금융 또는 파트너십을 다수 활용하는 한편, CMA CGM, Canal+, EDF, TotalEnergies, Eiffage, Sanofi 등 프랑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항만, 디지털 콘텐츠, 에너지, 보건 등 주요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
 - 프랑스 해운그룹 CMA CGM은 케냐 몸바사항 터미널의 현대화를 위해 7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약속¹²⁾
- 비즈니스 포럼을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하여 에너지 전환, 농업, 디지털·AI, 청색경제, 보건, 산업화 등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확대,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논의함.
 - 아프리카와 프랑스 및 유럽의 기업인, 투자자, 공공 부문 관계자, 청년 기업가 등 약 7,00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B2B 매칭, 워크숍, 네트워킹 등을 비롯하여 각종 공개 및 비공개 논의와 7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됨.¹³⁾
 - ‘기반 구축(Build)’, ‘생산(Produce)’, ‘혁신(Innovate)’, ‘신뢰 구축(Trust)’의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각 △ 아프리카에서 더 많이, 더 잘 생산하기 위한 정치적·산업적 조건, △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주권을 강화하는 전략, △ 아프리카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 △ 강력한 연대 구축 및 공동의 성공에 필수적인 자원 조달 등을 주제로 논의¹⁴⁾
- 230억 유로 중 90억 유로는 아프리카 기업, 투자자 등 역내 투자로 구성되어 프랑스의 일방적 자금 지원보다는 양측이 투자 주체로 참여하여 공동투자를 모색함.¹⁵⁾

12) Al Jazeera(2026. 5. 12.), “France’s Macron announces \$27bn investment in Africa at Kenya summit”(검색일: 2026. 6. 26.).

13) Élysée(2026. 5. 11.), “Speech by the President of the French Republic at the closure of the Business Forum”(검색일: 2026. 6. 12.).

14) Africa Forward Inspire and Connect 웹페이지.

15) Focus 2030(2026. 5. 18.), “In Nairobi, the Africa Forward Summit signals a shift toward a new Franco-African development finance doctrine”(검색일: 2026. 6. 25.).

표 3. 프랑스의 부문별 대아프리카 투자 발표 주요 내용

분야	투자 규모 (억 유로)	주요 사업
농업	10	· 농업보험 및 디지털 서비스 · 낙농, 원예 등 부문의 농업 가치사슬 투자 · 농업 교육 수준 향상 · 영양실조 대응 및 농산물 품질 향상 · 관개, 비료 투입, 재배 일정 등 농업 분야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청색경제	33	· CMA CGM사: 항만 역량 확보, 주요 지역 허브 개발, 물류 통합, 운송 가치사슬의 탈탄소화 등의 부문에서 아프리카에 투자 · Orange 그룹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유럽과 아프리카 간 디지털 연결성 강화 · 연안 생태계 관리 · 어업용 항만 및 영세 어업 전용 방파제 건설 등 어업 인프라 구축
은행·금융	2.5	·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신용공여 한도 제공 · 아프리카 내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기업인 Acre Export Finance 지원을 위한 신용공여 한도 제공 · 디지털 결제 솔루션 개발 기업인 Cauridor 지원 · FARM+ 이니셔티브 참여 · Equity Bank의 콩고민주공화국 내 영업 지원 · 탄자니아 CRDB 은행에 포트폴리오 보증 제공
산업화	3	· 코트디부아르의 지하 지질 구조 및 광물자원 파악을 위한 지도화 프로젝트 · 차드 모듈형 교량 조립 시설 설치 · 가봉 SETRAG 철도 노선 현대화 프로젝트 · 나이로비 통근 철도 재건 사업 일부 참여
디지털·AI	37.6	· 공중 광섬유망 구축, 디지털 허브 개발, 전자정부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디지털 프로젝트 금융 지원 · 아프리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출범 · 디지털 분야 고등교육 및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 위성 인터넷, 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연결성 확대 · AI, 사이버 보안 인재 육성 및 아프리카 시청각 콘텐츠 산업 투자
보건	9.4	· 현지 제약산업의 기술 및 규제 역량 강화, 현지 백신 생산 입찰 참여 등 · 병원 인프라 건설, 개보수, 장비 공급을 통해 의료 접근성 확대 · 백신 제조 기술 이전 · 아프리카 소재의 연구소 지원
에너지 전환	43.3	· 탈탄소화 관련 투자 · 태양광 발전소 개발 및 수력 발전 전력 생산 강화, 풍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 전력망 확장, 강화 및 디지털화 프로젝트, 농촌 전력화 프로젝트 등 · 기상청 역량 강화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 지원

자료: Élysée, "Sommet Africa Forward au Kenya," *Livrables économiques et financiers du Somm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안보] 아프리카 주도의 위기 대응, 다자주의 강화, 주권 존중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내 안보 위기, 지역 분쟁 등 대응 방향 논의¹⁶⁾
 - 평화·안보 선언에서 국제법 및 유엔헌장에 기반한 포용적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연합(AU), 지역경제공동체, 지역 메커니즘의 역할을 강조
 - 양측은 아프리카 군대의 역량 강화와 아프리카 평화 및 안보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분쟁의 해결은 아프리카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연합과 지역 기구가 중심이 되는 중재와 정치적 해법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 사헬 지역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군사정부는 사헬국가동맹(Alliance of Sahel States)을 결성하여 프랑스 등 서방 병력을 축출하고 러시아의 용병 조직에 군사 지원을 의존해 왔음.¹⁷⁾
 -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극단주의 확산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3. 평가 및 시사점

- 이번 정상회의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프랑스가 협력 대상을 동아프리카를 비롯한 영어권 국가로 넓히는 동시에 원조 및 안보 중심에서 경제·투자 중심으로 협력 방식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됨.
 - 2026년 정상회의는 영어권 국가인 케냐에서 프랑스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정상회의에 앞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경제·투자 협력을 전면에 배치하여 이전의 정치적인 성격의 정상회의와 차별점을 보임.¹⁸⁾
 - 이전에도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이 초청되었으나, 여기서 나아가 이번 정상회의는 영어권 국가인 케냐를 개최지로 선택하여 프랑스가 대아프리카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임.
 - 과거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의 요구사항 또는 우려 등을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청취하는 성격이 강했던 반면 이번 회의는 기업인, 투자자, 개발금융기관, 청년 기업이 등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의 성격이 강화됨.
 - 이는 2017년 말리 바마코에서 개최된 제27차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의가 ‘파트너십, 평화, 도약(Le Partenariat, la Paix et l’Emergence)’을 주제로 사헬 지역의 안보 위기, 테러리즘 대응 등 정치·안보 현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 점과 차이를 보임.¹⁹⁾

16) Élysée(2026. 5. 12.), “Nairobi Declaration for Peace and Security in Africa”검색일: 2026. 6. 12.).

17) Reuters(2025. 4. 4.), “Russia vows military backing for Sahel juntas’ joint force”(검색일: 2026.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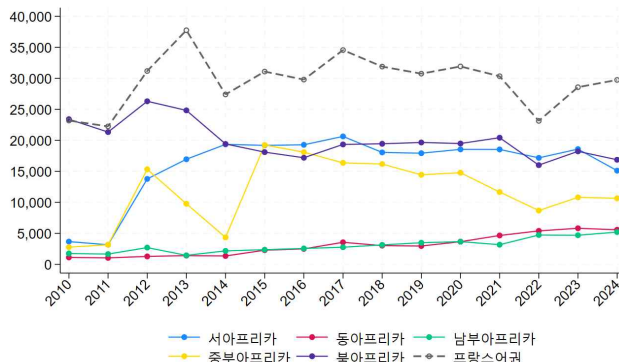
18) France 24, “Sommet Africa Forward au Kenya: Macron lance le renouveau Afrique-France”(검색일: 2026. 6. 23.).

19) 2021년 몽펠리에에서 개최된 신(新)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의의 경우 청년, 시민사회, 디아스포라 등 비국가 주체의 대화에 초점을 둔 행사로, 2026년의 정상회의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워 그 이전 정상회의인 2017년 말리 바마코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와 비교

- 2017년 정상회의에서도 개발 및 경제협력 의제가 포함되었으나, 말리를 비롯한 사헬 지역의 안보 상황 및 프랑스군 개입 등을 중심으로 논의됨.
- 케냐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프랑스가 과거 식민 지배국으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서아프리카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으로, 이러한 점을 활용해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으로 보임.
-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투자 및 개발협력은 여전히 프랑스어권 국가와 북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케냐 등 동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 움직임도 나타남.

그림 5.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FDI 누적액의 지역별 추이(2010~24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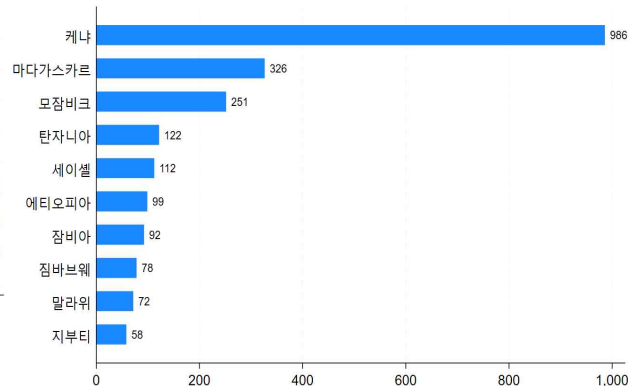


주: 지역별 분류는 OECD ODA CRS 데이터 기준에 따름.

자료: OECD Data Explorer, "FDI by counterpart area and by economic activity, BMD4" 데이터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 프랑스의 동아프리카 주요 투자국(2024년)

(단위: 백만 달러)



주: 1) 동아프리카 국가는 OECD의 동아프리카 분류를 따름.

2) 모리셔스는 글로벌 비즈니스 회사(GBC)를 통한 투자 경유지로 활용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OECD는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Mauritius 2024에서 GBC가 FDI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98.3%로 추산하고 있어 제외함.

자료: OECD Data Explorer, "FDI by counterpart area and by economic activity, BMD4" 데이터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아프리카는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진입장벽이 큰 시장인 만큼 한국은 공급망 다각화와 신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아프리카 내 현지 네트워크와 개발 사업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와의 삼각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음.

- 한국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2026년 6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상회의의 협력 모멘텀을 이어갔으며, 한-아프리카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및 외교 다변화 논의
 - 외교장관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 속에서 한-아프리카 간 기업 차원의 실질 협력 확대와 핵심광물·에너지·물류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 모델 구축 필요성을 논의함.²⁰⁾
- 한국은 식민 지배 경험이 없는 중견 협력국이라는 비교적 우호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보다 균형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음.

20) 외교부(2026. 6. 4.), 「2026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개최」, 보도자료.

- 이는 기존의 주요 협력국과 차별화되는 요소이며, 특히 농업, 인프라, 교통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에 더해 ICT, 디지털 전환, 스마트시티 등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 협력 수요를 발굴할 여지가 있음.
- 다만 아프리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수가 적고 현지 네트워크가 제한적인 만큼,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협력 경험과 현지 기반을 활용하여 한국의 한계를 보완하는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프랑스는 AFD, Proparco의 아프리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간 부문 금융지원과 Bpifrance-Business France의 프랑스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내 민간 부문 협력 기반을 축적해 왔음.²¹⁾
- 일본의 경우 제6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를 계기로 프랑스와 아프리카 협력 공동 행사를 개최하여 프랑스-일본 아프리카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을 통한 일본의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
- AFD,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양국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 도시, 태양에너지 및 수자원 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 차원의 협력각서를 체결함.
- 한국도 2026년 4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제3국에서의 한국-프랑스 협력 확대를 논의한 바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AFD 그룹, Proparco 및 KOICA-AFD 그룹 간 협정을 체결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²²⁾
- KOICA는 AFD와 협정을 체결하여 아시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이가 취약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재난위험 경감, 지속가능 인프라, 디지털 전환, 식량안보, 농업, 보건, 교육, 평화, 안정, 인권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 한국수출입은행은 AFD, Proparco와 민간부문 금융 지원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2024년 출범한 개도국민간투자자금대출(PDIF: Private-sector Development Investment Facility)을 기반으로 삼아 공동 금융 촉진 및 공동사업 구조화 등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함. **KIEP**

21) AFD, "Africa"; Bpifrance(2022. 6. 24.), "Bpifrance Strengthens Its Economic Links With Afric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6. 26.).

22) AFD(2026. 4. 5.), "En Asie de l'Est, le groupe AFD renforce ses alliances en faveur de l'Indopacifique"(검색일: 2026. 6. 16.).